

# 잊혀진 가람서 역사의 소리 듣는다



멀리 고구려 아사달 시절부터 가까이 625 한국전쟁 시기까지 시공을 가로질러 가슴 쓰린 현장들을 찾아갈 것이다. 때로는 길 없는 길을 가야 할 것이고, 풀벌레나 들짐승으로 화한 법신(法身)의 당채도 만날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일찍부터 통일운동의 문전을 들락거린 덕분에 갈 수 없는 저 북녘 산하를 열 번 이상 돌아다녔다. 갈 때마다 조르고 때달려 북의 사할 20여 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북의 사할들은 현존한다고는 하여도 광범사나 보현사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반세기 동안 향화(香火)가 끊겨 폐사지나 다름없었다. 부처님의 체온이 식고, 민중들의 뇌리에서도 떠나버린 절들을 현존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이 여행의 시발점을 저 봉린산 안국사(安國寺)나 설봉산 석왕사(釋王寺)쯤에서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여행의 선명성을 위해 본격 탐사는 금강산 극락고개 신계사터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벌써부터 북원을 약속한 내금강의 장안사, 개성의 영통사는 소식이 닿는 대로 손실됨을 예상하기로 해 놓고 말았다.

해방 전까지 문헌에 등장하는 북녘 땅 가람은 총 1천7백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현존한다고 전해지는 사찰은 60여곳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것들조차 대개는 예불이



○평안남도 평성 안국사의 수령 1천년 은행나무와 석탑. 은행나무는 역사도 주인도 다 떠난 뒤에 홀로 절을 지키느라 그 형색이 매우 지쳐보인다.

## 프롤로그

마침내 길을 떠난다. 흰 눈발 앞치마는 저 깊은 산하어딘가에 내가 찾는 그 곳곳에 있을 것이다. 더러는 이미 보았고, 더러는 아직 남겨 두었다. 더러는 누군가가 앞서간 길이었지만, 더러는 내가 먼저 찾아가고 싶었다. 잘 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대던가. 내가 산발을 뚫던 황해북도 안악의 구월산 계곡 그 너럭바위가 때론 연백역이 뜰에서 길을 잃은 남자(男子)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내가 온 몸으로 헤쳐며 나아 간 남한강변 목계 나무 그 갈참나무 숲이 도심의 미로에서 헤매는 못 독자들에게는 소스라치듯 세월의

후미로 빠져드는 역사 탐험의 가이드 레일이 되리라. 1년여에 걸쳐 길 떠날 채비를 하였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어서 새해부터는 무작정 길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서둘러 나를 아꼈던 폐허의 현장으로 불러주는 것은 구름도 달경거리며 지나치는 어느 심산유곡의 이름 모를 석불(石佛)들의 눈빛이다. 초점없는 석불들의 그 눈빛에 나는 눈을 맞추고자 한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내면조차 더이상 보고있지 않다. 그들이 보는 그것을 나는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가고 싶은 것이다.

**석불들의 눈빛찾아**  
잊혀진 가람 탐험'은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려는 공부이다. 땅까지 고부서진 어제의 불교, 그것이 바로 한국불교의 뿌리요, 본·모습이다. 잃어버린 한국불교의 과거를 찾아 오늘, 이 땅 불교의 주소를 새롭게 조명하려고 한다.

회차란 아워어 가는 이 산하 도처에는 수많은 폐사지들이 널려 있었다. 어떤 것은 보전되고 발굴되어, 또 어떤 것은 당한 새 주인을 만나 화려하게 복원되기도 하여,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방치된 채 낡아터가 되고, 과수원이 되어 겨울

와 함께한 영육을 되새기며 사글파리 조각처럼 오천년 지층에 박혀있다. 폐사지 탐험의 또다른 목적은 폐사의 복원과 보전에 관해 독자와 함께 새로운 화두(課題)로 삼고(參究)해 보자는 데 있다. 불교계에서는 폐사지에 관해선 불교가 주인이라는 시각에서 무조건 복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있고, 문화계에서는 복원보다는 발굴을, 발굴보다는 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상반된 시각과 의견된 충돌에 관해, 그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저 철축의 땅 밑에서 들리는 역사의 목소리는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고 싶은 것이다. 우리네 발 밑 조그만 파보면 안다. 이 땅이 얼마나 부처님과 인연깊은 불국

## 5천년 지층에 박힌 영육 되새겨 한국불교 어제와 오늘 새 조명

리만큼끼리 통일된 문을 여는 해로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의 골짜기로 회귀하는 한국이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세상사를 접고, 삼독심과 칠정으로 모두 속처럼 부풀어 오른 뇌수를 떨치고 차라리 저 청초우거진 숲속에 무두불(無頭佛)처럼 놓고 싶은 때이다. 이 땅의 선지식들은 왜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렇게 무수한 절들을 지으려 애썼고, 왜 또 지금이 그 때인가를 이제라도 반도의 뒷걸과 후미진 돌담을 뒤지며 민족 정체성의 원형을 짚어 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2년여에 걸쳐 반도의 곳곳을 누빌 이 여행은 기막힌 구도 여행이 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에서부터 남으로는 제주 존자암까지, 또 시간적으로는

끓고, 솟고, 솟고 없으니 어찌 솟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드러내놓고 개방한 사람들은 비록 외부 관광객들에 의해서나마 향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겨우 절인 채 폐사(廢刹)되어가는 현존 사찰들은 어느 것부터 안부를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폐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각은 있으나 부처님이 없고, 부처님은 있어도 불보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폐사지일 것이다. 북에는 폐사지나 다름없는 전각들이 많고 남에는 어찌까지 폐사지였으나 오늘날은 당찬 새 주인을 만나 화려하게 부활한 절들이 많으니 앞으로 이 여행에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뭇 넓고, 남북만 해도 알려진 폐사지가 2백여 곳이 넘기에, 주제의 엄격성을 위해 우선은 완벽한 폐사지만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북녘 현존사찰 60곳

평성의 안국사와 안변의 석왕사는 공통점이 많은 절이다. 국가나 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공통점이 있었고, 하나는 선채로 박제가 되고, 하나는 육신이 다 소멸된채 불구로 남아 있으니 '잊혀진 절'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형편에 공통점이 있다.

평양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평성 안국사를 찾아가는 것은 재작년 초겨울이었다. 평성은 평안남도의 도청 소재지로 옛 지명은 순천이다. 안국사는 평양 인근에 있는 절로는 사적이 제일 큰 것이었으나, 조선불교교도연맹의 간부들조차 가보지 못한 '잊혀진 절'이다. 따지고 보면 이 절도 복원된 절인데, 서기 503년 고구려 문자왕 시기 왕간·담시에는 현재의 자리에서 2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잡았던 것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현재의 자리에 중수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절원쪽 최초의 그 사지에는 깨어진 기와장과 탐 터가 남아있다. 다 저널 때 봉린산(鳳麟山) 기술에 이르니 봉황은 간대 없고 난대없는 까마귀 때들이 나타나 여기서는 저들이 봉황인 양 시끄럽게 울어댄다.



## 폐사지 같은 북녘가람들

안국사 503년 고구려때 창건... 깨진 기와장·탐터만 석왕사 조계문 간신히 남아... 李태조 현몽서린 곳

◆필자약력  
이번호부터 폐사지 여행 '잊혀진 가람 탐험'을 연재하는 장지현은 시인으로 본명은 장동환이다. 1959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진격대학, 미국 리플랜드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지난 8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서울 지옥》 《눈은 산》 등의 시집과 수필집 《눈은 눈 보지 못했잖아》, 전기문 《탈북은 자유, 해방법은 그림자라》 등을 펴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직종 현지법인의 주교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명교신문》 주필과 전국복지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다.

### 토탈시큐리티 전문기업 - 조은시스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에서 최첨단 인터넷 보안 솔루션까지 -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열어가는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토탈 시큐리티를 서비스 합니다.

#### Total Security 사업

- 첨단 전자감비 /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멀티미디어/화상 복합)
- 경비보안 장비 판매 및 설치(R/F, 지문, 열체, DVR, CCTV, 출입, 방범)
- 컴퓨터 보안 / 컨설팅 및 케트콜(위악성 분석 ↔ 사후관리)
- 정보 보호 Solution 구축 및 유지 관리(Firewall, IDS, PKI, VPN 등)
- 아파트 전자 경비 / 호시큐리티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중요시설 특수경비 및 청원경찰 운영(공항, 공공시설, 금융권 등 인력+전자장비)

#### 정보통신 사업

- 정보통신 / e-biz 컨설팅
- 유·무선 통신 / 관제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 공사
- e-biz 솔루션, N/W 및 제어장비의 판매 및 설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물레이션, 홈페이지, 학사관리 등)
- 시스템 장비 판매 및 유지 관리(Unix / NT Server, Storage 등)
- 전자과 차단 및 무선도청 방지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이퍼드 전자감비시스템  
출시유리터

R/F, 지문도어락

DVR (SEP-C16)

출동경비시스템

인천국제공항  
경비 보안 및 시스템운영

H/W 장비

PC보안시스템

VPN

PKI 인증  
암호화 솔루션

서버  
침입탐지시스템

**Jbeun systems**  
(주)조은시스템 www.jbeun.com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 대한빌딩 2층 TEL: 2122-7500(회사대표), 2122-7574(정보통신), 774-0112(기계경비), 2122-7608(특수경비), 596-9787(정보보안) / FAX: 757-4040 / e-mail: cs@jbeun.com